

Young In Hong:
**Five Acts &
A Monologue**

홍영인:
다섯 극과 모놀로그
2025. 5. 9. - 7. 20.

A

SJ

아트선재센터 스페이스2

C

《홍영인: 다섯 극과 모놀로그》는 원형의 태피스트리와 동물 장난감의 형상을 한 조각들, 그리고 다섯 번의 즉흥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다섯 극>(2024/2025)과 사운드 설치 신작 <우연한 낙원>(2025)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전시는 가부장적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여성과 동물의 시선으로 제의적 공간을 새롭게 엮어 냅니다. 여기서 제의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억눌려 온 기억과 사라진 존재들을 감각적으로 불러내고 재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작가는 태피스트리, 오브제, 사운드, 퍼포먼스를 매개로 공동의 몸짓과 감각을 활성화하며, 그 안에서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또 하나의 시간대를 열어 보입니다.

<다섯 극>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사의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은 결코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드러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영웅 중심의 지배적인 역사 서사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기생 출신의 독립운동가 현계옥, 제주에서 반일 투쟁을 이끈 해녀 부춘화,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지도자 신순애 등, 작가는 이들의 서사를 작품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작가가 환기시킨 역사적 장면들은 길이 40미터의 태피스트리에 수놓아져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전시 기간 중 다섯 번의 퍼포먼스를 통해 현재의 감각으로 되살아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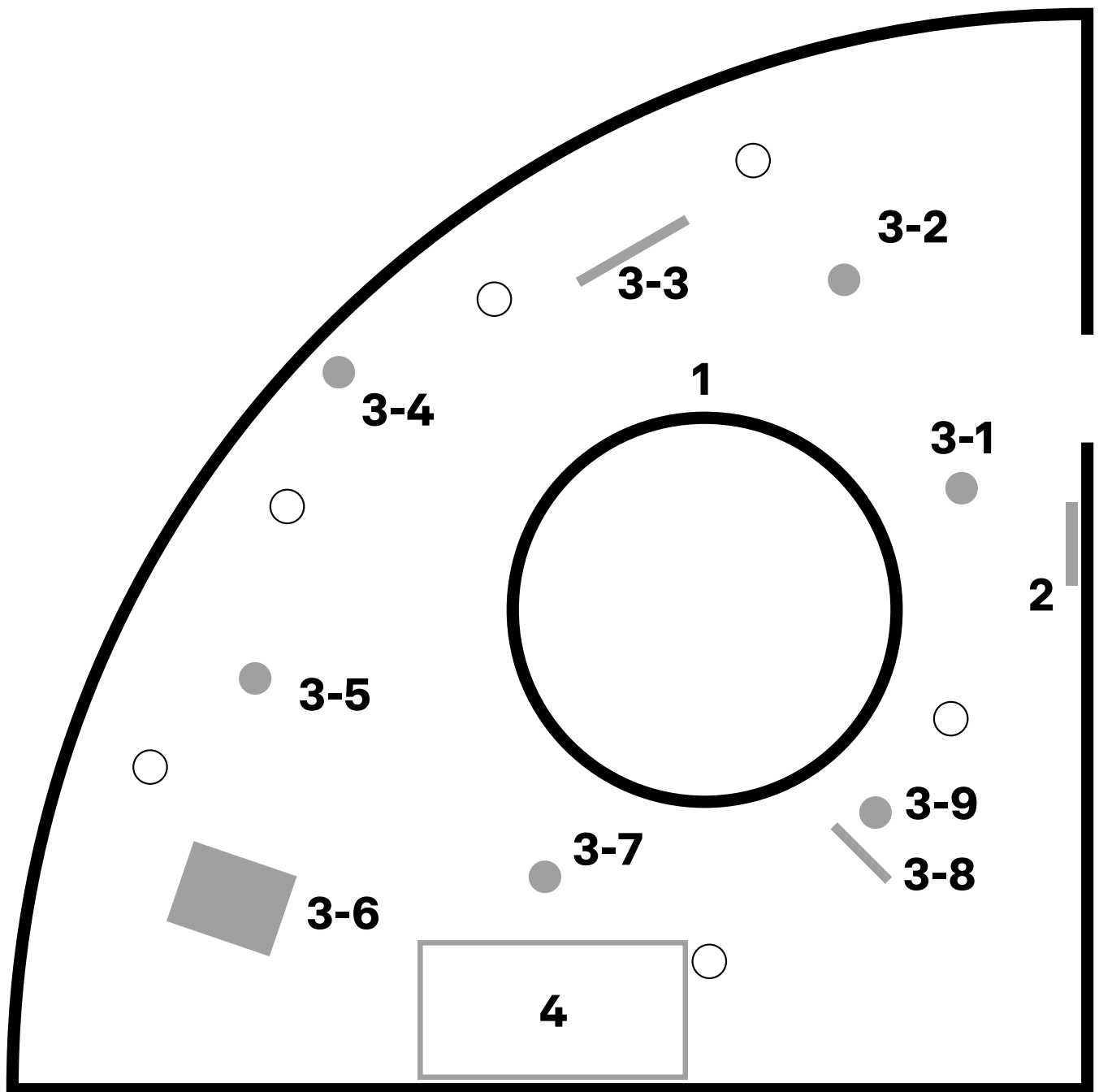
태피스트리의 안쪽 면에 자수 되어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상입니다. 이는 작가가 바람, 구름, 태양 등 자연의 요소들이 돌에 새겨져 있는 울주 천전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버드나무, 천, 세라믹으로 제작된 조각들 속에서도 되풀이되어 공간 전반에 리드미컬한 시각 언어를 형성합니다. 원형의 태피스트리 주변에는 홀라후프나 고리 던지기처럼 놀이 기구를 연상시키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작가가 동물원에서 관찰한 행동 풍부화 도구에서 착안해 제작한 것입니다. 전시 기간 중 펼쳐질 다섯 번의 퍼포먼스에서 이 조각들은 악기이자 도구, 그리고 신체의 연장으로 활용됩니다. 퍼포머들은 역사적 장면이 수놓아진 태피스트리에 반응하며, 현재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몸짓을 구성합니다. 퍼포먼스에는 드러머가 함께하며, 태피스트리 하단의 동물 형상의 악보를 따라 즉흥적으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어두운 방에 설치된 <우연한 낙원>은 작가가 직접 작성하고 낭독한 텍스트를 두루미의 목소리로 재생하는 작업입니다. 협업자 오웬 로이드는 작가의 목소리를 13개의 음질로 분석하여 이를 천 개가 넘는 두루미의 울음소리와 연결 짓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거쳐 글을 읽는 작가의 목소리는 다양한 음색과 성조의 두루미 목소리로 변환되며, 이는 마치 작가 목소리가 두루미의 합창으로 재현되는 것에 유사합니다. 작가가 두루미에 주목한 이유는 두루미가 멸종 위기로 상징화된 존재일 뿐 아니라, 무리로 생활하며 항상 복수의 소리를 내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비무장지대에서 두루미를 처음 마주한 기억을 떠올리고 두루미와 자기 자신, 이 두 존재를 교차시키기를 시도합니다.

이 전시에서 태피스트리, 사운드, 퍼포먼스는 유기적으로 어우러집니다. 홍영인은 선형적 서사와 수직적 위계를 거부하며, 몸짓, 리듬, 소리를 통해 역사가 감각되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장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저항의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서 맥동하며, 관람객의 몸과 퍼포먼스를 통해 생성될 에너지와 리듬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플로어 플랜

지도에 있는 작품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작품의 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퍼포먼스 다섯 극을 위한 매뉴얼-원형 프레임 외벽>, 2024

삼베에 자수, 8점, 각 244x56x8cm

<원형 프레임 내벽>, 2024

삼베에 아플리케, 8점, 각 241x56x8cm

<퍼포먼스 다섯 극을 위한 매뉴얼>은 총 8개의 태피스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피스트리에는 여성 노동사의 기록과 역사적 사진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생 출신 독립운동가 현계옥과 정철성, 임금 삭감에 맞서 을밀대 지붕 위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강주룡, 호미를 들고 독립운동에 나선 제주 해녀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소녀 노동자들, 노동자 인권을 위해 싸운 이소선과 동일방직 노조를 이끈 이총각, 그리고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신순애까지,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이미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삽화를 통해 사건을 엮어가는 이 서사 방식은 작가가 12세기 잉글랜드의 바이외 태피스트리(Bayeux Tapestry)로부터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태피스트리 안쪽은 울주 대곡리와 천전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착안한 추상화된 동물 형상과 기하학적 문양이 자수와 아플리케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과 삼베의 물성, 그리고 자수와 바느질이라는 행위에 담긴 수공예적 노동은, 신순애를 비롯한 이름 없는 여성 노동자들의 몸과 시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태피스트리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워진 역사와 잊힌 존재를 호출하는 제의적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상징적 이미지와 수공예적 제의가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작가는 한국 근현대 여성 노동사를 오늘의 감각 속으로 불러내며,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관객들을 초대합니다.

신순애, 이총각 선생님께서 초상 사진을 태피스트리에 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 극을 위한 매뉴얼>은 스파이크 아일랜드에서 열린 전시 《다섯 극》(2024)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이 전시는 서부 잉글랜드 시각 예술 조합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파이크 아일랜드의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2.

<다섯 극>, 2025, 퍼포먼스

일시: 5월 8일(목) 18시

5월 24일(토), 6월 14일(토), 6월 28일(토), 7월 12일(토) 14시

퍼포먼스 프로덕션 코디네이션: 신진영(아파랏/어스)

퍼포머: 남윤주, 윤태준, 이윤, 지후트리, 진유영

<퍼포먼스 스케줄표>, 2025

면 위에 자수, 나무 프레임, 142x232x4cm

전시 기간 중 다섯 차례 진행되는 <다섯 극>은 네 명의 동작 퍼포머와 한 명의 드러머가 태피스트리와 조각에 반응하며 펼치는 즉흥 퍼포먼스입니다. 작가는 퍼포머들에게 태피스트리에 새겨진,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역사에 대해 사전 안내하며, 퍼포먼스가 그 기억을 신체적으로 호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의도합니다. 드러머는 태피스트리 하단에 수 놓인 동물 형상의 추상적 패턴을 악보 삼아 리듬을 구성하고, 퍼포머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며 상단의 서사를 몸으로 체득하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또한 <소품> 조각들을 악기이자 놀이 도구처럼 활용해, 역사적 장면들을 몸짓과 리듬으로 재구성합니다. 작가는 동물원에서 관찰한 동물들의 도구화되지 않은 움직임 즉, 목적 없는 놀이의 몸짓을 여성 노동사를 접근하는 하나의 대안적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놀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이며, 동물의 비도구적인 움직임처럼 억압과 효율성의 논리에서 벗어납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이 즉흥 퍼포먼스는 잊힌 존재들과 이야기들을 다시 현재로 불러들이며, 관객이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감각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3.

<소품 5. 고리 던지기>, 2024

나무, 다양한 크기의 7개 고리(버드나무, 천연 염색된 짚, 면 밧줄, 실, 금속, 나무, 플라스틱, 금속 종), 약 80x80x75cm

<소품 1. 대 위의 바퀴>, 2024

버드나무, 등나무, 목재, 바퀴: 89x89x30cm, 대: 45x37x40cm

<소품 4. 벨 스크린>, 2024

짚, 골풀, 14m 길이의 도자기 종, 315x20x110cm

<소품 3. 새가 되어>, 2024

버드나무, 등나무, 색실, 금속, 세 개의 도자기 종, 60x60x250cm

<소품 2. 돌아가는 원>, 2024

금속, 색실, 목재, 110x75x150cm

<소품 10. 차임벨 기계>, 2025

천연 섬유, 종, 낫쇠, 밧줄, 나무 막대, 나무 구조물, 2개의 의자, 약 130x220x85cm

<소품 9. 긴 밧줄>, 2024

주트, 가변설치

<소품 8. 그물 스크린>, 2024

천연 염색된 골풀, 130x5x540cm

<소품 6. 소리 공>, 2024

버드나무, 등나무, 금속 종, 지름 약 40cm

<소품> 연작은 동물원에서 관찰한 행동 풍부화 도구에서 출발한 9점의 수공예 조각입니다. 작가는 동물의 움직임에 유도하는 장치들, 제주 전통 곳에서 사용된 무구 ‘기메’, 머리에 짐을 받칠 때 쓰는 ‘파리’ 등 다양한 물건들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해 조각으로 구현했습니다. 짚풀과 섬유처럼 유연한 재료들은 엮이고 짜여 입체 구조를 이루며, 태피스트리를 둘러싼 공간 곳곳에 배치되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이 조각들은 고리 던지기, 그물 오르기, 종치기 등의 동작을 연상시키며 인간과 동물의 놀이를 환기합니다. 특히 동물의 움직임은 특정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비도구적 몸짓으로, 자유롭고 반복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의의 본질과 닿아 있으며, 실용성을 벗어난 몸의 흐름은 억압된 기억과 감각을 소환하는 통로가 됩니다. <소품>은 퍼포머들의 개입을 통해 태피스트리의 이미지들과 연결되며, 지워진 역사를 다시 감각하게 하는 제의적 공간을 활성화합니다.

사라 제인 에드워드, 이충경, 권규택, 밀리 하디와 코퍼 사운드의 제작 도움을 받았습니다.

4.

<우연한 낙원>, 2025

5채널 사운드 설치, 오웬 로이드와 협업

<우연한 낙원>은 작가가 비무장지대에서 처음 두루미를 마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텍스트 「두루미와 나」에서 출발한 사운드 설치 작품입니다. 이 글에는 세 화자가 등장합니다. 예술가 자신, 두루미, 그리고 인간의 신성 인식을 새의 영적 여정에 빚대어 표현한 중세 페르시아 시인 파리두딘 아타르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텍스트는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되며, 그 음성은 두루미의 울음소리로 변형되어 공간 중앙에서 재생됩니다. 이는 작가의 목소리에서 추출된 13개의 음향적 특징들을 수많은 두루미 소리와 연결해 재구성한 것으로, 오웬 로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공간의 측면에 배치된 4개의 스피커에서는 매년 두루미가 돌아오는 비무장지대에서 수집한 자연의 소리가 배경음으로 흐릅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작가 피터 마티센은 『천상의 새』에서 두루미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인 비무장지대를 ‘우연한 낙원’이라 일컬은 바 있습니다. 이 설치의 작가의 목소리, 두루미의 울음, 비무장지대의 자연음이 서로 얹히며, 종 간의 위계, 허구와 현실, 이야기와 목소리의 경계를 허뭅니다. <우연한 낙원>은 인간과 비인간, 과거와 현재, 사실과 상상이 겹쳐지는 접점에서, 작가도, 두루미도, 시인도 아닌 새로운 감각적 주체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사운드 제작은 바스 스파 대학교의 지원을 받았으며, 음향 자료는 코넬 조류학 연구소, 마카울리 도서관, DMZ 생태 연구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가 소개

홍영인 (b. 1972)

홍영인은 태피스트리, 사운드,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으로 작업한다. 작가는 작업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위계 구조를 유연하게 허물고,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존재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개인전으로 《파이브 액츠》(스파이크 아일랜드, 2024), 《동물의 고리》(쿤스트할레 엑스트라 시티, 2022), 《달나라의 장난》(주영한국문화원, 2017), 《6/50 fig-2》(ICA 스튜디오 & 극장, 2015) 등을 개최하였으며, 참여한 주요 단체전으로 제체시온(2024), 창원조각비엔날레(2024),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2024), 부산현대미술관(2023), 아트 타워 미토(2023), 서울시립미술관(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0), 터너컨템포러리(2017) 등이 있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 작가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1년 김세중 조각상, 2003년 석남 미술상을 수상했다. 홍영인의 작업은 영국 아트 카운슬 컬렉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퍼포먼스

<다섯 극>

일시: 5월 8일(목) 18시

5월 24일(토), 6월 14일(토), 6월 28일(토), 7월 12일(토) 14시

퍼포먼스 프로듀서: 신진영(아파랏/어스)

퍼포머: 남윤주, 윤태준, 이윤, 지후트리, 진유영

* 퍼포먼스는 당일 전시 티켓 소지자에 한해 사전 예약 없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

12:00-19:00(월요일 휴관)

입장료

10,000 원(25세-64세)

7,000원(19세-24세, 65세 이상, 예술인패스 소지자)

5,000원(9세-18세)

무료: 8세 이하 및 장애인, ICOM · CIMAM · 서울시미술관협의회 카드 소지자

도슨트 프로그램

화요일-일요일 오후 2시, 4시

소요시간: 40분

홍영인: 다섯 극과 모놀로그

2025. 5. 9. - 7. 20.

기획 문지윤

진행 유승아

그래픽 디자인 강승연

번역 김신우

설치 이성일, 이윤수

작가 어시스턴트 김한울

운송 아트인

사운드 설치 멀티텍

사진 남서원

영상 이의록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 김현미, 김윤지

주최 아트선재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5 아트선재센터.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아트선재센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87

T. 02 733 8949 / F. 02 733 8377 / W. www.artsonje.org